

“우리나라 의과학 분야의 핵심 리더들”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제11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수상자인 김범경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방영주 서울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 김은준 KAIST 생명과학과 석좌교수, 김호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왼쪽부터).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제정한 제11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부문에 김은준(54) KAIST 생명과학과 석좌교수 겸 기초과학연구원(IBS) 시냅스뇌질환연구단 단장, 임상의학부문에 방영주(64) 서울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가 선정됐다. 젊은의학자부문은 김호민(40)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와 김범경(40)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수상했다. 아산재단은 기초·임상의학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3억 원,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5천만 원 등 수상자 4명에게 총 상금 7억 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3월 21일 오후 6시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조병문 대한신경손상학회 회장·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오우택 KIST 뇌과학연구소 소장·김인규 경기대 총장·박오욱 KAIST 교학부총장·권대봉 고려대 명예교수·정정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이승규 아산의료원장(아산의학상 운영위원장)·이상도 서울아산병원 원장 등 학계와 의료계·의학 관련기관

인사,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윤석화 연극배우·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재계와 문화계 인사, 이홍구·장정자·이상주 이사를 비롯한 아산재단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역대 수상자 중에서는 박승정 울산대 의대 교수·고규영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고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한덕중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 등이 함께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의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이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아산의학상을 제정했으며, 2008년 제1회 수상자로 김효수 서울대 의대 교수를 선정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25명에게 아산의학상을 수여했다. 제1회부터 제5회까지는 기초와 임상의학부문에서 매년 한 명씩 번갈아가며 시상했고, 제6회부터 국내최고 권위의 의학상에 걸맞도록 기초와 임상에서 각각 한 명씩, 또 젊은의학자부문에서 두 명씩 모두 4명으로 수상자를 늘렸다. 2016년 제9회 아산의학상 시상식부터는 수상자 범위를 해외 의과학자로 확대해 로베르토 로메로(Roberto Romero) 미국국립보건원 교수가 임상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국제적인 의학상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산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2011년 조성한 아산의학발전기금을 2017년 4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아산의학상 시상과 수상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과학의 소중한 자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수상자 네 명에게 축하인사를 전한 뒤 “오늘은 저희 아버님의 17주기인 날이다. 아산재단을 세우신 아버님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40여 년 전인 1977년에 아버님께서서는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고 하시면서 아산재단을 설립하셨다. 재단 설립 이듬해인 1978년부터 정읍과 보성, 보령, 영덕 같은 이른바 무의촌에 종합병원을 세우셨다. 병이 들어도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이 깊어져서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을 막고자 하셨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현대적인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지방병원을 다 지으



인사말을 하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축사를 맡은 정남식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회장(위부터).

신 다음에는 연구개발 역할을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아산병원을 설립하셨다. 아산재단은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의과학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2007년에 아산의학상을 제정했다”면서 아산재단의 설립 의의와 아산의학상의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서 정몽준 이사장은 유튜브 동영상상을 보면서 혼자 익힌 베이스기타 솜씨가 수준급이어서 카이스트 교수들과 밴드를 결성해 공연까지 한 김은준 교수와, 고등학교 때 공대 진학을 희망했으나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의대로 진로를 바꿔 이 자리까지 온 방영주 교수, 지난 몇 년 동안 아산의학상 수상자들을 축하해주러 시상식에 왔다가 마침내 수상자로서 참석한 김호민 교수와 어릴 때 잔병치레가 잦아서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김범경 교수 등 수상자들의 주요 업적과 함께 일화를 소개했다. 아울러 수상자들을 내조하느라 애쓴 부인들을 수상자와 함께 인사시켜 큰 박수를 이끌었다.

정몽준 이사장은 “수상자 네 분의 빛나는 업적들은 우리나라 의과학의 소중한 자산이다.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자세는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사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 지었다.



①젊은의학자부문 수상은 이흥구 아산재단 이사가 맡았다. 왼쪽부터 김범경 교수, 이흥구 이사, 김호민 교수. ②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영상물도 상영됐다. ③USP 챔버 오케스트라와 김방술 울산대 교수(소프라노)가 축하공연에서 이탈리아의 가곡 '일바치오'(Il Bacio)를 들려주는 모습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 제시

제11회 아산의학상은 지난해 7월부터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승정 울산대 의대 교수)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연구의 일관성과 독창성, 해당 연구의 국내외 영향력, 의학발전 기여도, 후진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김은준 교수(12~15p 참조)는 시냅스 뇌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10년간 시냅스 단백질들의 이상이 자폐증, 조현병, 정서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과 관련 있음을 밝히는 등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수상 소감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김 교수는 “기초의과학 연구는 대단히 어렵고, 연구 결과가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나 환자 치료에 응용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아산재단의 지원이 큰 위안이 된다”면서 “오늘의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도록 실험실원들과 함께 연구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방영주 교수(16~19p 참조)는 위암을 포함한 국내의 중앙내과 치료 및 연구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임상의사로서 위암과 폐암 등 주요 암의 항암치료 및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방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제 연구들로 인해 많은 위암 환자들이 오래 살게 된 것은 제게 엄청난 보람이고 자랑이다. 그 성과로 오늘 국내 최대의 의학상인 아산의학상을 받게 됐다”고 말한 뒤 “제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내과 전문의, 중앙내과 전문의로 성장한 것은 여러 교수님과 선배님, 그리고 동료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김호민 교수는 신경세포 및 면역세포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한 공로를 평가받았으며, 김범경 교수는 B형 간염에 의한 간암 발생의 새로운 예측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21p 참조). 김호민 교수는 “제 연구 결과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고, 김범경 교수는 “이번 수상을 연구자로서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을 내라는 격려로 받아들일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유례 찾기 힘든 아산의료원의 발전

축사는 정남식(66)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회장이 맡았다.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의료원 원장을 역임한 정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은 서양에 비해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 최근 30여 년의 의생명과학 연구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발전했다. 특히 아산의료원의 발전 모델은 그 대표적인 예다. 아산재단이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과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아산의학상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보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표상”이라면서 “소신과 철학으로 묵묵히 각자의 분야를 발전시켜온 아산의학상 수상자들은 우리나라 의생명 분야의 핵심 리더로서 우리나라의 의생명과학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인류의 건강한 삶과 보건 향상에 지대한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만찬에 이어 울산대 음대 교수와 졸업생들로 구성된 현악 오케스트라인 USP 챔버 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현대중공업이 메세나(Mecenat) 운동의 일환으로 지원해 2007년 11월 창단한 이래로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실내관현악단으로 성장한 USP 챔버 오케스트라는 아르헨티나의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작곡한 ‘리베르탱고’(Libertango) 등을 들려줘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

※아산재단 홈페이지 www.asanfoundation.or.kr에서 인사말과 축사, 수상소감, 그리고 관련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